

전기전자

Dragon's Tech Tree #5. BMW i3, 유럽 전기차의 반격이 시작된다!

2013. 8. 8

전기전자
Analyst 김현용, CFA
02.3779-8955
hyunyoung.kim@etrade.co.kr

Top-Tier 유럽 OEM의 첫 양산 EV에 대한 기대감 고조

현재 전기차 시장은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다. 15%를 점유중인 유럽 메이커 중에는 르노만이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Top-Tier 유럽 메이커들도 EV를 생산한 적은 있지만 3,000대 이상 본격 양산한 모델은 없었다. 11월 독일을 시작으로 출시되는 i3가 첫 양산 EV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시장과 전기차 배터리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전기차 Top3에 도전하는 BMW 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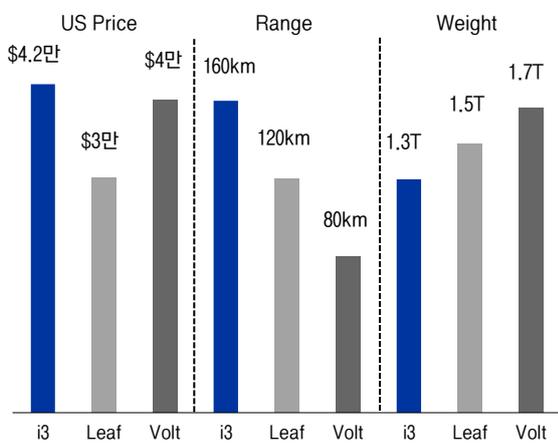
현재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누적판매량으로 보면 닛산리프와 GM볼트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각각 7만대, 5만대 이상 판매했다. 토요타의 Prius PHEV가 3.5만대로 그 뒤를 잇고 있다. BMW는 공격적으로 연 4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에서 2013년 상반기까지 2년반 동안 누적 1,000대 이상 판매한 25개 차종의 판매량을 분석해 보았다. 평균 누적판매량은 10,500대(연 4,200대)이고, Top5의 평균은 35,000대(연 14,000대)에 달한다. BMW i3가 목표의 절반만 달성해도 Top3 진입이 가능하다.

BMW i3에 대한 초기 시장반응은 긍정적이다. Top-Tier 유럽 OEM의 첫 양산 EV에 거는 기대감이 큰 것이다. 2013년 3월 BMW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수백대의 i3 사전 주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첫 술에 배부르겠냐 만은 테슬라의 모델S도 첫 주문을 받은 2009년 1분기 주문량은 500대에 불과했던 점을 상기해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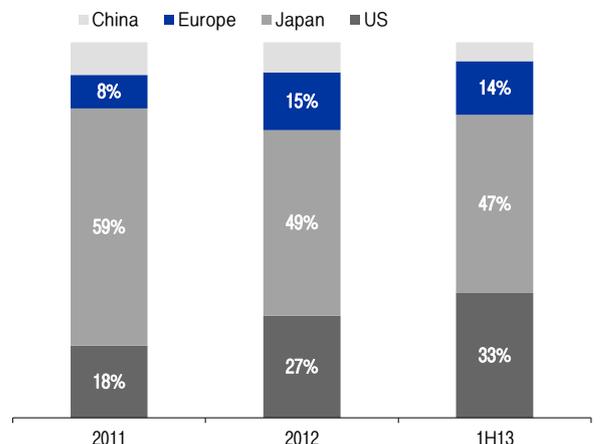
이번 모델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영역이다. 다만, 메이저 유럽업체가 드디어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15%에 불과한 유럽 메이커의 전기차 점유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체들의 구도도 변화할 것이다. 산업 초기의 시장점유율은 얼마든지 급변할 수 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일본 3사(닛산계열의 AESC, GS Yuasa, 파나소닉)가 50%, LG화학이 20% 가량 점유중이다. 유럽 전기차의 반격으로 삼성SDI를 비롯한 유럽향 벤더들의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그림1] BMW i3 vs LEAF vs Volt



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OEM 소재지별 전기차(HEV 제외) M/S 추이



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현웅)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